

특집/대한수의사회지 창간 40주년 기념

1. 대한수의사회지의 발자취

박 근 식

1. 머릿말

원고청탁을 받고 보니 과거와는 달리 겁이 앞선다. 왜 그럴까? 그동안 공직생활 38년후 아직 내 주변이 정리되지 않은 탓도 있겠으나 그보다 이제와서 철이 나기 시작한 공지(公誌)이며 대한수의사회지 자체의 무게와 읽는 자를 의식한 탓일 것으로 생각하고 글을 쓰기로 작정하였다.

인류문명의 발전은 과거를 뒤돌아보는 데에서 비롯된다. 마치 인간이 이세상에 태어나 1년이 되면 “돌”이라 하고, 60이 되면 “회갑”, 70이 되면 “고희”, 88이 되면 “미수(未壽: 八十八)”라 하여 잔치를 베풀면서 살아왔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문화가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한수의사회지의 발간 발자취를 창간 40주년을 맞이하여 재정리하여 본다.

2. 대한수의사회지 발간 배경과 당시 주변의 정세

암울했던 일정(日政)의 역사는 끝나고 광복을 찾은 대한민국은 아무 준비없는 상태에서 미군정을 거쳐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법률이나 모든 사회제도는 일제치하의 것을 그대로 적용했어야 했고 새로 구성된 정부에 남아서 일하는 사람도 일본

총독부에서 일하던 한국인이 맡아서 하는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수의·축산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이도 또한 잠시였고 1950년에 6.25 동란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당시 수의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던 선배님들이 관계(官界)를 중심으로 수의업무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였던 흔적을 여러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던 해인 1948년 10월에 뜻있는 분들이 모여 대한수의사회를 결성하였다. 前서울대 수의대 학장 오순섭 선생님의 고증을 받기 위해서 1997년 9월 30일 초청하여 당시 상황을 청취(박근식, 최병인)한 바에 따르면 1945~48년까지 미군정 당시 수의공직에는 이남신 박사가 서울대 농대 교수, 가축위생연구소(안양, 부산) 소장으로, 김영한 선생이 안양가축위생연구소장, 한영우 선생이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수의국장, 오순섭 선생께서 보건후생부 수의국 위생과장, 위생계장에 임윤희 선생이 근무하였으며, 1948년 정부수립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던 김상돈 국회의원(전 서울시장 역임), 이남신, 이병상, 오순섭 선생님 등이 모여 대한수의사회를 결성(1948년 10월)하고 초대회장에 김병순 당시 국회의원, 상무에 이병상 선생님이 취임하고 사무실을 서울시 공평동에 있었던 이병상 선생의 동물병원 원장실에 두었음을 파악하였다. 한편 1948년 5월 20일에 서울시수의사회가 김덕균 회장에 이병상 상무로 창립된 기록을 미루어 보아 당초 서울시 수의사회를 결성하고 보니 전국수의사를 묶는 조직이 없었기에 동년 10월에 대한수의사회를 결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서울시수의사

* 대한수의사회 상임부회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과충 기술봉사단 수의분과위원장

회 상무였던 이병상씨가 대한수의사회 상무도 함께 한 것과 사무실을 자기병원에 둔 점 등을 미루어 짐작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한수의사회의 창립날이 10월이란 기록이 되는 없어 필자로서는 특별한 고증이 없는한 10월 15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그후 1956년 10월 26일에 수의사법(법률 412호) 제 24조에 의해서 중앙수의사회로 개칭되었으며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된 것은 1957년 11월 17일이었다. 그리고 수의사의 자질을 높이고저 그동안 농림중학교(5년제) 수의축산과를 졸업만 하여도 수여되던 수의사면허증 발급제도가 정규 4년제대학 수의과를 졸업한 자로서 국가가 시행하는 수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야만 면허증을 수여하는 수의사국가고시제가 수의사법 시행령인 법령 1282호가 1957년 5월 31일에 공포되는 변혁이 있었다.

필자도 이 해에 대학을 졸업, 입대하여 군 복부중에 제1회 수의사국가고시를 치렀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도 당시 식량의 자급을 위해서 미국원조(ICA 원조)에 의해서 기반조성하는 시기였으며 정부기구도 개편되는 등 새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이와같이 여러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1957년에 농림장관으로부터 대한수의사회의 설립허가를 11월 17일에 받은 다음, 같은해 회지 창간호를 발행하게 되었으니 당시 선배님들의 회지발간에 얼마나 정열을 쏟았는지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감회가 깊다.

3. 창간호에 반영된 이상(理想)과 포부

창간호에 기고한 발간사나 축사를 통해서 그당시 그분들의 이념과 포부를 재조명해 보는 것은 후세의 우리들에게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차원을 넘어 선인들의 출발점에서 설정한 목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앞으로의 좌표나 발전전략 수립의 한 척도를 찾는 데 그 뜻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수의사회장이신 김병순 국회의원은 창간사에 「인생은 짧고 과학은 영원하다, 회지의 발간은 「국가 흥망의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강

조한 다음, 맺음말에서 「격동하는 혼돈된 사회풍조의 부침(浮沈)된 가운데 밝음의 전진만을 약속한 본지의 사명이 한층더 무거워짐은 지축(地軸)의 운전이 기서(機序)인 정유(丁酉)의 회고에서 다가오는 새해의 복된 휘광(輝光)의 밝음에 영롱하고 오색광채의 터전에서 개척의 역군이 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그 얼마나 갈망했고 자신에 차있으며 봉사로서 일하겠다는 굳은 결심의 표현이 강렬하게 담겨 있다. 오늘날 이기심이나 자기분위에 치우친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지 가히 짐작이 간다.

한편 정재설 장관의 축사에서는 「아방농업경제 부흥의 토대, 영농형태개편의 기본이 되는 가축위생 향상과 수의기술보급의 대중화 목적으로..., 한국수의사상 큰 발전... 창간은 한국수의계의 큰 충격」으로 표현한 다음, 「앞으로 한국의 수의가 세계 제패를 장담...」, 「남북통일의 성업과 결부, ...영세한 생활환경과 고전분투하는 한국수의계의 건전한 발전을 경하」한다는 줄거리의 축사였다. 장관이 마음으로 격려하고 회지의 창간을 남북통일의 성업과 결부시켜 수의사의 격을 크게 높였고 또 앞으로의 포부를 세계를 제패하는 수의계가 되기를 갈망하고 영원한 점은 높이 평가 받을 일이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의 좋은 교훈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수이에 대한 기대로 세계제패의 가능성을 당시의 장관의 입장에서 크게 격려한 점을 닦타가 눈을 감고 휘몰아치는 모래바람속을 방향을 잡고 가는 심오한 눈을 가진 것으로 느껴지며, 당시 수의사들의 영세한 생활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마저 아는 자상한 면까지 보살핀 점은 깊은 인상을 준다. 이 시기에 장관의 주변에서 활동한 수의사들의 로비와 능력을 가히 짐작되며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장관으로 하여금 수의철학을 심어준 것이 돋보인다.

당시 이남신 축산국장의 창간호 축하는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국정에 있어서 축산3대원칙에 가축 방역과 공통위생의 철저한 주지보급에 이바지할 “수의계”의 사명을 강조하였고, 윤상원 서울대학교 축산학과장은 「학술잡지이면서 임상의 심오한 내용과 구성에 6호 활자이며 한국초유의 면모를 구비한 기술잡지인 회지의 창간은 우연이 아닌 시대의 촉구」로 부러워한

점도 엿볼 수 있으며 당시 수의축산분야를 수의분야가 리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창간호를 발간할 당시의 한국경제는 말이 아니었으며 끼니를 걱정하는 시대였으나 광택모조지로 지질도 좋을 뿐만 아니라 깨끗한 6호 활자는 40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그리 촘스럽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어 있어 한번 정도 창간호를 펼쳐 봄 직도 하다. 비록 끼니는 없어도 수의사의 얼굴을 대신하는 수의계의 잡지는 최고급으로 만들어 내셨던 선인들로부터 각박하게 생활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나를 희생하고 큰 것을 구하는 의지를 역역하게 보여주어 감명 깊다.

4. 유년기(1957년~1966년)

창간호는 이와같이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기대속에서 탄생하였다. 당시의 편집내용을 보면 종설, 원저, 임상, 자료, 초록, 축산, 번역, 보고, 논제, 사고(史考) 시험, 기행, 방문, 상식, 좌담회, 질의, 게시판, 소식, 집편으로 18개 부분으로 다양한 구상 아래 67쪽으로 계간(년 4회)으로 발간하였다.

다소 중복되는 면은 있으나 당시 우리나라 수의사에게 무엇을 홍보하고 어떻게 선진국 또는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보급해야할 것이냐는 고심과 욕망 그리고 현실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그리고 사상성, 알려야 할 사항 등 정말로 의욕에 차고 포부가 큰 면면을 볼 수 있다.

편집위원으로는 가축위생연구소 이창희, 이택주, 서울대 수의대, 홍병욱 이영소, 농림부 김영한, 국립방역연구소(현 국립보건원) 민창홍, 수의사회 이병상, 개업수의로서는 김규상, 이재호, 정익용, 김효중, 김규강 등 여러 선생께서 창립멤버였으며, 박영출 상무께서 편집을 총괄하였다. 따라서 김병순 초대회장(1957~59년)까지 3권 4호까지 발간되었으며 뒤이어 조치영 회장(1960년)때 4권 1호에서 4호까지, 그후 1961년 이남신 제3대 회장이 취임하면서 편집위원에 김선환 선생이 추가되었고, 5권 2호(1961년 12월)부터 김준삼씨가 편집인으로 그리고 1963년에 7권 3호부터 최성호씨가 편집인으로 수고하시면서 1966년까지 10권을 발간하였으나 정부의 보조금 중단으로 정간(停刊)의 뼈아픈 고통이 시작되었다.

5. 성장기(1967년~1976년)의 파란만장의 운명

예측컨대 이남신 회장이 축산국장으로 재임하던 때였기에 발간비가 정부에서 보조되었으나 그후에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후 여러가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뜻있는 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수의사들의 뜻을 한 곳으로 모을 계기와 슬기마저 없었던 상황에서 수의사회의 재정은 어렵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회원마저 수의사회와의 거리감을 심화되어가고 있을 때였다.

이와같은 고통속에서 1971년 6월 1일에 10년동안 사용하여 오던 「수의계」의 지명을 대한수의사회지로 개칭하여 11권 1호를 과학기술처의 보조금을 당시 김영한 과학기술처 연구조정실장(1급)의 배려로 속간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5년만에 회지는 겨우 소생되었으나 여의치 못하여 또 쓰라린 정간상태에서 방황과 암흑의 5년간이 지속하게 되었다.

이때 정간 전후의 역대 임원과 회지발간 실적을 살펴보면 초대부터 5대 까지는 회지의 발간이 순조로웠다고 할 수 있었으나 제6대 및 7대 김삼상(당시 국회의원)회장 때와 제8대와 9대 심재열 회장시절이 회지발간에 있어서 아주 불우했던 시기였다.

이때 대한수의사회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최고로 고조되어 대한수의사회에 대한 불신의 싹이 트기 시작하여 전국의 수의사들이 수의사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까웠고 이 시기가 한국축산이 자리잡아가는 시기였기에 일선에 배치된 임상수의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였기에 더욱 통탄스러웠다. 특히 발간사업에 있어서도 “월간양계”, “월간양돈”, “월간축산”, “현대양계” 등 전문지가 홍수처럼 나올 때였기에 수의업종을 대표하는 단하나 밖에 없는 회지마저 계간도 나오지 못하였으니 전국수의사의 사기가 말도 아니었다.

6. 청년기(1977년~1986년) 시련과 고통을 딛고 희생 기반조성의 모색

이와같이 암울했던 수의사회에서도 정부로부터 외면되고 전국 수의사들로부터 지탄받았던 고난을 해결

할 지도자를 찾아 당시 한국요구르트 사장으로 계셨던 윤쾌병 사장님(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 8대 대한수의사회 부회장)을 1975년에 10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상임이사를 육군본부 의무감실에 초대 수의병과장을 역임하였던 김만영 예비역 대령을 임명하여 새롭게 출범하였다. 그때 당면과제였던 회지의 복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학술홍보위원회를 재구성하여 1976년 5월부터 계간으로 제12권 1호가 다시 태양을 보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회지발간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교섭을 한 결과, 1979년 8월 1일에 새로 발족한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 가입하여 당시 학회에만 지원하던 학회지 발간보조금을 교부받은 일도 있었다.

당시 필자는 가축위생연구소 계역(鷄疫)과장으로 대한양계협회에 양계산업 부흥을 위해 편집위원, 방역위원장, 이사로서 활약하면서 익혔던 협회 및 월간 양계 발간경험을 수의사회에 접목시키고저 수차에 걸쳐 대한수의사회에 회지발간을 국가보조금 보다 자구책으로 수의약품 및 축산관련업계의 광고로서 충분하게 회지 발간이 가능함으로 동물약품 허가관청인 농림부 가축위생과와 허가기술검토 기관인 가축위생연구소를 비롯해서 국립동물검역소, 동물약품협회 임원, 동물약품 기업체 대표를 남산 중턱에 있는 중국집 회래등(?)에서 모임을 갖고 수의사회지 발간에 적극 광고협조를 받도록 조치하여 그 때부터 회지에 광고를 실어 회지발간 자금을 조달토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10년만에 속간(續刊)하는 일이라 회지 발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편집위원회를 학술 및 홍보위원회로 개칭하고 각 분야에서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분들을 모았다. 초대 학술홍보위원장에 이방환 박사(전북대 수의대 교수), 부위원장에 정창국 박사(서울대 수의대 교수)를 비롯해서 조형기, 라기식, 김화식(경북대 수의대 교수), 조길현(미8군 근무), 박봉조(가축위생연구소 병리과 병성감정실장), 박근식(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장), 신광순(서울대 수의대 교수), 강병규, 이재구(전북대 수의대 교수), 박응복(경상대 수의대 교수), 김우호(강원대 수의학과 교수), 이원창(건국대 수의학과 교수), 임창형(서울대 수의대 교수), 정순동(경희대 의대 교수) 등 16명으로 구성하여 재활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나 역시 수의사회의 예산과

어려운 여건으로 년 1-2회의 모임만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은 어려웠다. 그러나 이들이 열의를 갖고 공동의 노력과 봉사으로써 엮으면서 회지의 성격을 어떻게 방향을 정하여 나아갈 것인지 학술홍보위원회 내에서도 설왕설래가 있었다. 일부에서는 개업 임상수의를 위한 잡지로, 일부에서는 학술잡지로, 모처럼 속간되는 수의사회의 유일한 회지인 만큼 관심도도 높았다. 아무튼 편집을 위한 모임때마다 시간이 부족하리 만큼 토론은 열을 띠고 의견은 백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1978년 까지 회지를 발간하면서 차차 기틀을 잡게 되었다. 독자와 집필진과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 1979년 15권부터는 특집시리즈를 연재하기 시작하여 일선 임상수 의사와 그동안 단절되었던 지식과 기술의 공백을 메우도록 하였다. 연간 20-30%의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었던 식용가축과 집단위생관리를 위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처방의 내용을 전문분야에서 활약하던 집필가를 중심으로 엮어 현대축산에 감각을 신속하게 맞추도록 노력한 흔적을 읽을 수 있다. 이 당시 학술홍보위원회의 일부 교체가 이루어져 윤화중(건대, 병리학), 최희인(서울대, 임상), 탁영빈(경북대, 공중위생), 정영채(중앙대, 번식) 교수가 위원으로 보완 선임되었다. 이때 상무는 김만영씨였고, 편집은 최종해씨께서 맡았다.

1981년에는 집행부에 이순우 사무처장과 편집전담에는 안남신씨(당시 양계협회에서 월간양계 편집담당. 필자의 추천으로)가 맡고 학술홍보위원회로 개칭하여 정영채 박사가 이끄는 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후 1985년 7월부터 회지가 나아갈 방향을 찾고 학술홍보위원회 안에 편집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매 분기에 1회 모임을 갖고 편집일을 돕게 되었다. 당시 농림부에서 발간비를 지원받아 "기술보급지"로 격월간지로 발간하였다가 1982년(18권)부터 계속 월간지로 발간하여 정기간행물의 구실을 하게 되었다. 이때 학술홍보위원으로 최철순(부위원장), 권중국, 김순재, 박근식, 서익수, 윤화중, 이영욱, 이춘섭, 정순동, 최희인 등 학계출신으로 구성되었다.

이와같이 청년기에 참담한 시련기를 딛고 번민의 뒤안길에서 번영의 희망을 안고 장년기를 맞게 되었다.

7. 장년기~발전기(1987년~1997년)

1986년 회지를 속간한지 10년. 장년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학술홍보위원장이 필자에게 까지 이어졌고 그때가 제15대 정창국 회장이 취임한 시기였다. 오랜동안의 전통적인 회지의 맥을 살피면서 한정된 지면으로 보완하고 작업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당분간 응급조치를 위해서 일선 개업수의사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기 위한 해외수의기술정보와 다소 수준이 높은 학문적인 체계를 갖춘 종설, 새로 개발된 수의약품을 보다 신속하게 임상수의사에게 전달방법을 강구하여 종래 제약회사에서 양축가에 직접 전달되던 것을 미리 그 정보를 수의사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신개발 약제와 기술란을 신설하였다. 그 이외 수의사로서 알아두어야 할 수의과학 및 축산관계 정보란 그리고 정부의 시책이나 축산과 관련된 소식란을 대폭 증설하여 잡지의 기능을 다양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교양물이면서 우리들의 직업과 관계되는 제임스 해리웃의 “어느 수의사의 일기”를 번역하여 소개함으로써 수의사의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고, 이와같은 다양한 편집은 제한된 예산과 지면으로 충당할 수가 없어 보다 광고모집에 힘쓰면서 당분간 격월간으로 지면을 증가토록 하였다. 최근에 와서 회지의 내용이 차차 충실해지면서 독자들에게 익히는 책으로 격려의 소리도 많아짐에 따라 광고주도 늘어나고 기고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86년에 와서 이와같은 활동을 위해서 한 사람의 취재기자를 채용하여 편집실무진을 보강하고 학술홍보위원도 대폭 강화하여 세분된 전문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한 분들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적극 참여한 위원은 다음과 같다. 기생충성 질병에 강영배 연구관(가위연), 세균성 질병에 김봉환 교수(경북대), 가금질병에 김순재 교수(건국대), 소동물 임상에 김영민 원장(오류가축병원), 동물검역 및 수의행정에 김옥경 지소장(동검 서울지소), 외과에 남치주 교수(서울대), 돈질병과 관리에 박용복 교수(서울대), 원충성 질병과 어병에 서명득 교수(경상대), 바이러스 질병에 안수환 과장(가위연), 부화 및 도계위생과 언론에 오경록 상무(천호), 장내세균에 윤용덕 연구관(가위연), 면역 및 해외질병에 이영옥 과장(가위연), 공중보건 및 수의통계에 이원창 교수(건국대), 내과학에

이주목 교수(전북대), 동물약품에 장병표(삼화동물약품), 가축전염병에 전무형 교수(충남대), 가축번식에 정영채 교수(중앙대), 중앙성 질병에 최정옥 교수(전남대), 내과에 한홍을 교수(서울대), 동물약품과 축산물위생에 필자인 본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때 지금의 “수의사의 다짐”과 “수의사의 윤리강령”이 제안되어 검토하여 이사회에 넘긴 때였다. 이와같은 체제는 1990년 4월까지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에는 결본이나 합본없이 정상적으로 월간으로 발간되었다.

제16대에 와서는 이원창 건국대 교수(위원장)팀인 강영배, 권영방, 김순재, 김영민, 남치주, 안수환, 윤용덕, 윤종삼, 이창우, 장경진, 장병표, 전무형, 조길현, 한홍을 팀으로 이어져 1993년 4월까지 운영되었고, 1993년에 제17대 이길재 회장의 취임과 함께 한홍을(위원장) 교수는 학술위원에 김덕환(충남대), 박남용(전남대), 신종욱, 조명래씨를 추가하고 홍보위원으로 권태석, 김정환, 박용호, 여운돈, 장기운, 최준표, 홍하일씨로 등용하였다. 그후 제18대에 와서는 위원장에 한홍을 교수가 유임되고, 위원은 이인세(서울대), 강영배(수과연), 어중원(농림부), 박용호(서울대), 최준표(포스일렉트릭), 이상진(농림부), 강승원(수과연), 모인필(수과연), 이채용(전남대), 홍하일(동병협), 이상목(건국대), 허강준(충북대)로 구성하여 정책, 학술, 임상개업, 어류질병 등 폭넓은 분야로 참여시켰으며 과거 회지발간에 소요되는 예산마련에 고심하던 일들도 사무처의 인력보강(사무처장: 조영웅 박사, 상무: 이원철)으로 광고협찬에 의해서 자력으로 발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회지발간에만 얽매었던 것과는 달리 발간사업으로 “소수정란이식 아트라스”도 발간하고 과거 회지 백넘버를 합본으로 제본하여 판매하는 다소 여유있는 일도 할 수 있었고 특히 대한수의사회의 홍보책자인 “대한수의사회 요람”을 칼라판으로 3,000부나 제작하여 전국에 배부하는 일까지 그리고 전국수의사의 Directory(인쇄중)과 수의법규집(편집중) 등의 의욕에 찬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수난의 시절을 거울삼아 계속 뻗어 나아가는 일만이 남아있다.

수의사회지 창간 40주년을 맞이한 우리들은 그동안의 모든 사안을 회고하여 여기에서 얻어진 것을 교훈으로 삼아, 21세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없이 모든 일들을 미리 예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0년간(1967~76년)의 회지의 휴간으로 수의분야에 미친 영향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그동안 급진적으로 발전하여온 수의과학기술 보급의 채널이 차단됨으로써 새로운 수의기술을 야외에서 적용할 수 없었으므로 가축질병의 예방과 진료에 미친 영향, 수의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제안이나 제언이 없었던 점, 한 시대의 발전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구조의 진취적인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회학적 논리로 보아 10년간은 완전히 의식전달의 모체가 없으므로 인하여 수의 전반에 걸쳐 침체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이때의 10년간이란 한국의 축산이 도약하고 급성장기인 1968년부터 1976년인데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이 시기는 농가부업형태의 축산에서 전업으로, 집단다두사육형태로 변화하는 시기였으므로 종래의 개체진료에서 군(Herd)단위로 질병의 진단이나 예방치료 그리고 위생관리체제가 바뀌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일선 임상분야에서는 수의사가 앞서 지도해야할 역할이 뒤로 물러나므로 집단다두사육을 하는 전염양축장과 거리가 날이 갈수록 멀어지고 심지어는 고유의 역할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축산사회 분위기 속에서 축산관련전문지가 각 축산생산자단체나 사설잡지사가 이와같은 공백을 대행(?)하게 되고 수의분야에서 집필할 우수한 진용이 양축가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이들 축산관련지를 통해서 글이 양축가에게 직접 전달되었다. 때로는 수의교육을 받지 않는 분들이 이러한 수의기술을 지상을 통해서 직접 활용함으로써 야외에서 여러가지 제기되었던 문제도 수의사회의 정간에 의해서 발생한 일로 귀착된다. 따라서 당시 회지 정간의 10년이 지금에 와서 가장 가까운 고객인 양축가와 거리가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수의사의 불신까지 이르게 하여 모든 동물들이 지역에 있는 임상수의사의 영역하에 있도록 입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마저 무색할 정도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의 가축이 개업수의사 영역하에 10%도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

축가는 질병발생이나 예방에 소홀하여 오늘날 줄잡아 질병에 의한 피해액이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와 연결되어 축산업의 국제경쟁력마저 위협받아 산업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의 저해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때의 10년이 20년 이상 축산과 수의발전을 지체시킨 것이다. 이제는 모두가 어려울 때 작은 힘을 하나로 묶어, 나 하나의 양보와 협력이 위대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임을 성찰하여 강력한 공동체로 엮어야 할 것이다.

9. 회지 = 수의사회 발전과제

과거를 재조명하여 우리의 참모습을 찾고 영원히 이어나야할 한세대의 위대한 역사를 꾸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 현역의 책무이다. 회지를 꾸리는 사람들의 맥락과 읽고 이해하는 맥락도 그 이음새에 하나의 흠집도 없이 이어나가기 위해 몇가지 발전시킬 과제들을 도출해보면 발전된 기술의 해설소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수의직종의 새로운 영역을 발전, 확장(예시: 수생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축산식품의 안전성 분야, 생물공학, 제약, 기타 광범위한 위생분야 등)하고 이에 소요되는 수의인력의 양성개발에도 회지가 앞장서서 선동하고 자극하여야 한다. 고도산업화시대를 맞는 우리들에게는 생산분야에 속한 수의학에서 사회개발차원 그리고 시장유통 분야의 주역이 될 기준도 필요하다. 한편 우리들 직업관의 확립을 위한 수의사의 윤리도덕과 가치관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본지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앞으로 지면을 크게 증가시켜 산적된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일과 수의직업을 세상에 알리는 본지 자체지 발간도 또 하나의 과제라고 본다.

지난 11월 18일 제185차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후속조치와 시행을 위해서도 또 축산물가공식품의 관리일원화 추진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반대의견이나 소비자 및 국회의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 수의사가 왜 축산식품을 관리하느냐? 또 수의사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불식시키고 생산자(양축가, 처리장, 가공업체)와 소비자에게 수의사의 직무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축산인을 위한 홍보지 "수의·축산"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축산식품" 등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는 달리 쓰는 자와 읽는 자가 따로 있는 회지가 아니라 모두가 글을 쓰는 자요, 읽는 자의 광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상기술에 관한 실용연구 논문도 많이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록 기술보급지라 하더라도 좀더 세련되고 현대감각에 맞는 편집기술을 도입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는 막강한 직업단체이며 일반 법인체와는 달리 법률(수의사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므로 긍지를 가져야 하며 또 농촌에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키는 사명마저 지니고 있음을 자부해야 한다. 특히 각 시도지부에서 그동안 중양의 회지가 제대로 그 구실을 못한 탓으로 지부회지가 발간되어 대역을 치른 흔적도 있다. 중앙회지가 정간되었을 때 서울시 수의사회지가 2년간 발간되었던 기억도 있다. 당시 윤쾌병 회장과 라기석 상무가 힘썼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같이 각 지부에서 중앙회지 정간에 따라 그 기능을 대행하였던 지부와 당시임원 및 회원에게도 영원한 찬사를 보내야 할 것이다. 이제 중앙회지와 각 지부회지와는 독립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많은 과제를 해결해 나아가는데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운영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로 생각된다.

그리고 회지는 물론 수의사회의 발전은 감독기관인 농림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역대 가축위생과장의 활약이 컸으며 최근에 와서 배상호 과장이 리드하는 위생과 팀은 그 어느 때보다 결속되어 있어 마음 든든하다. 정부기관을 비롯해서 교육 및 연수기관과 모든 수의사는 우리업무와 연관된 분야와 협력하여 회지, 곧 수의사회의 육성에 배가의 노력이 필요할 때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결행합시다.

10. 글의 맺음말과 우리의 각오

이상 수의분야를 대표하는 전문지로 1957년 12월에 「수의계」로 탄생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성장과정을 약술하였다. 정말 기구한 운명을 지닌 채 40년 나이의 한 장년이 되었다. 축복속에서 태어난 「수의계」는 유년기까지는 잘 성장하였으나 성장기인 1967년부

터 1976년까지 굶주림과 병고에 시달려오다가 겨우 소생, 오늘까지 온 회지가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동안 발간과 편집에 귀한 시간과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분들에게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다만 가장 중요하고 소중했던 시기에 이 분야의 능력부족으로 10년동안 정간되었었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당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수의사들의 자조금으로라도 난제를 타개하였다면 오늘의 수의분야보다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되었을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나 하나의 안이를 얻기 위해 100을 버린 셈이다.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이러한 과오는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단합하고 협력하여 수의직업의 보람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회지를 성장발전시킬 다짐을 합시다.

특히 1996년 3월~1998년 2월 제18대의 대한수의사 임원들은 우리가 집행을 담당할 기간에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지 창간 40주년을 맞이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수의교육연한을 6년으로 하고 교육개혁은 교육법시행개정(1996년)으로 98년도부터 시행토록 하였고 우리의 숙원사업인 수의과학회관 건립도 이미 착공하여 1998년 6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12년동안 투쟁하여 왔었던 축산물가공식품관리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거사도 지난 11월 18일에 어렵고도 우여곡절끝에 제185차 정기국회에서 표결로서 처리된 바 있다. 본 사안은 과거 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단순한 위생관리에서 모든 축산물의 보관, 유통, 판매까지 관장하게 되어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다. 우리의 지혜와 노력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수의직무 영역이 확장되는 중요한 기반조성은 이루어졌다.

우리들의 할일과 역할이 이제 제자리를 잡기 시작한 중요한 때이다. 이제는 소모적인 시간낭비의 타습을 버리고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입법과 정책, 수의와 축산, 행정과 연구, 교육, 임상과 식품안전관리 모든 분야가 이기를 초월하여,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만이 우리의 살길이 열리며, 이러한 일은 누가 해주지 않고 우리만이 해야할 명제이다. 다 모여 함께 해쳐 갑시다.